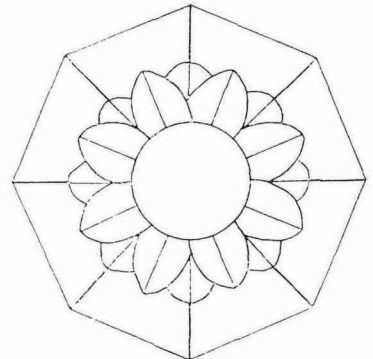


#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의舍利孔

金 禧 庚

意匠의 奇拔함과 裝飾의 豊麗함과 아울러 世人의 愛讀을 받고 있는 이 塔은 韓日合併直後에 日人들에 依하여 大阪 藤田家에 搬出되었다가 다시 返還되어 現位置인 景福宮에 建立케된 受難의 過去를 지니고 있거니와 美人多魔라고 할까 거듭 六·二五動亂時에 砲彈의 被害로 屋蓋石以上이 落下되었던 것을 一九五七年十一月二日부터 同年十二月十六日까지 故林泉氏 監督下에 再建補修工事が 이루어졌던바 當時의 詳細한 記錄은 알 수 없다.

塔身上面에 方形의 큰 舍利孔(註一)이 있고 다시 그 扁平한 底面中央에 작은 圓孔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덮는 屋蓋石은 四、五쪽으로 破損되어 있었는데 裏面中央을 八角으로 파내고 다시 그 안에 插圖와 같



(屋蓋石面 中央의 蓮花紋)

死後 그를 追慕하는 弟子들의 誠意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에 있어서야 : 實測值

舍利孔 一邊長 一尺四寸五分 內底圓孔 直徑約二寸? 深約七寸?

그리고 原所在地인 江原道原城郡富論面法泉里寺址에는 遼太安元年(一〇八五)記銘의 塔碑와 建物遺址가(註二) 完全히 남아 있어 高麗佛敎全盛期를 回想케 한다. (이 塔碑가 있는 一廓建物址는 今春發掘調査되었는 바 塔은 碑와 나란히 그 前面에 있었다 한다.)

끝으로 이 小文을 爲하여 貴重한 資料提供과 再建工事時의 狀況에 對하여 아낌없는 敎示를 하여 주신 尹武炳氏에게 깊은 謝意를 表하여 둔다.

註一, 이곳 舍利具는 塔과 더불어 日本으로 搬出된 것으로 推定된다.

現地 古老들은 舍利具의 發見을 傳하고 있다.

註二, 이 塔 앞에는 六角石燈이 配置되어 있었는데 火舍石破片이 今春 工事時에 出土되어 本誌에 紹介되었다. (本誌六卷三、四合併號 金 東賢氏 紹介文參照)